# 랜선기부가 대안, 기부플랫폼 지원을

[해설] 포스트코로나 '랜선기부' ①

**NGO, CMS로 기부한파 적어**
**사랑의 열매 등 QR기부 도입**
**기부단체 양극화 극복이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부한파가 거세지만 조금은 상황이 나은 곳들이 있다. 바로 불교계 NGO 단체들이다. 지구촌공생회, 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 등 국제개발협력NGO 단체들은 다른 기부후원 단체들에 비해 상황이 양호하다. 그 원동력은 CMS를 비롯한 랜선기부다.

지구촌공생회의 경우 2003년부터 CMS를 적극 도입했다. 1만원씩 후원하는 CMS로 인하여 월 1억원이 넘는 기부후원이 들어온다. 코로나 기부한파에도 기부후원 감소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회보 외에 인터넷 공지와 함께 문자 발송 등 운영이 중요하다. 마스크 후원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프라미스 또한 정부지원금과 기업후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부후원은 2019년 대비 8%감소했지만, CMS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후원금은 6%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더프라미스 측은 "충성도가 높은 고정후원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심리불안해소, 코로나 극복키트 지원 등을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해 알리는 등의 활동을 2021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또한 CMS에 기반해 2020년 상반기 3%가량 감소한 후원이 하반기 모두 회복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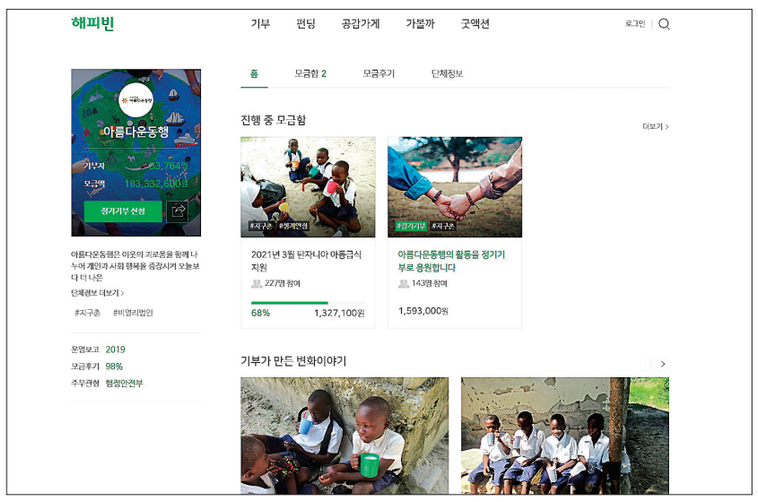
CMS와 함께 다양한 단체들은 SNS를 통한 홍보와 QR, 해피빈 기부 등 이른바 랜선기부를 모색하고 있다.

랜선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2월 초 유튜브 채널 '아름다운동행TV'를 개설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꾸준히 모바일 기부를 받고 있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 또한 올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장기기증 접수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불교 밖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하철 QR기부 등 핀테크와 결합한 기부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문제는 이 같은 랜선기부에 동참하지 못하는 영세한 단체들이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한끼나눔과 생필품 전달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는 코로나 이후 후원액과 물품이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봉사회를 이끄는 김윤석 경감은 "쪽방촌 봉사의 경우 직접 봉사자들이 연탄나눔 등을 하며 기부도 함께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후원도 감소했다"며 "모바일 기부나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받는 등의 활동은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아름다운동행 해피빈 모금페이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 또한 코로나 기간 회원들과 만날 수가 없어 후원금이 50%가량 감소했다. 떡국떡 장사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교복지원을 하고, 결핵환자 돕기, 장애인 가정 지원 등을 진행하기에 1년에 4000만원 가량이 나눔활동을 위해 쓰이지만 모연처 전환은 답이 없는 상태다.

안성이 회장은 "일부 회원의 경우 자동이체를 하지만 작은 단체여서 보통 모임에서 만나 회비를 내고 동참을 한다. 큰 단체들이 모바일 기부, CMS 등을 하지만 사실 언감생심"이라고 전했다.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의 경우 회원들의 CMS정기후원을 조직하긴 했지만 회원 감소세로 회원 배가운동을 따로 전개 중에 있다.

한국모금가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는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구글 비영리스터디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기부자의 75%가 기부정보를 온라인에서 찾고, 기부자의 47%가 기부 전 복수의 기부사이트를 방문하며, 주로 유튜브인 온라인 영상을 본 잠재기부자의 30%가 기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현재 주요 정보전달인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기부가 앞으로 떠오를 것이다. '카카오같이가치' 등 소셜펀딩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기부처를 중심으로 작은 단체들까지 지원하는 불교 온라인 기부플랫폼 구성, 혹은 기존 플랫폼 활용지원 등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선암사 판결, 한국불교 역사·전통 왜곡"

**조계종 중앙종회, 2월 24일**
**선암사 판결 규탄성명 발표**

최근 대법원의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소송' 판결과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가 2월 25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은 물론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나아가 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왜곡하고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 이는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는 최소한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법률마저 부정한 채 통합종단에 반기를 들고 종단을 탈종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를 합법화 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국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불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규정한다"고 성토했다.

해당 판결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국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실체 부정,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독신 비구승들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 현대불교문학상, '선문학' 부문 정휴 스님

**조계종·문인協, 수상자 발표**
**이하석·성석제 문인도 선정**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22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이하석 시인, 성석제 소설가, 정휴 스님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 중 정휴 스님〈사진〉은 '백담사 무문관 일기'로, 올해 신설된 선문학 부문의 첫 수상자에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조계종과 현대불교문인협회는 "선문학 부문은 불교문학 창달에 이바지 한 승려 문인을 선정하는 분야"라며 "그동안 불교문학을 견인해 온 정휴 스님을 첫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위원장 오세영)은 당선작 '백담사 무문관 일기'에 대해 "백담사 무문관에서 수행한 체험이 녹아 있어 '꽃향기를 맡지 말고 들어보라. 번뇌가 삭아서 녹아내리고 군살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아픔이 일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는 저자의 가르침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휴 스님(운수시인, 고성 화암사 회주)은 "취하고 버림에서 자유롭고자 이 묵형(墨刑)을 받아들인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스님은 "육십이 넘어 사유가 깊어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싶어 하는 곳을 비워야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숭고한 정신은 고통 속에 다듬어지고 깨달음은 번뇌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정진이 길어지고 응시가 깊어지자 안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져서 내 안에 닦아도 사라지지 않은 어둠이 있고 언젠가 밖으로 뛰쳐나올 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202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최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대행스님 가르침, 인재 밑거름 되길"

**한마음선원 2월 22일, 제 16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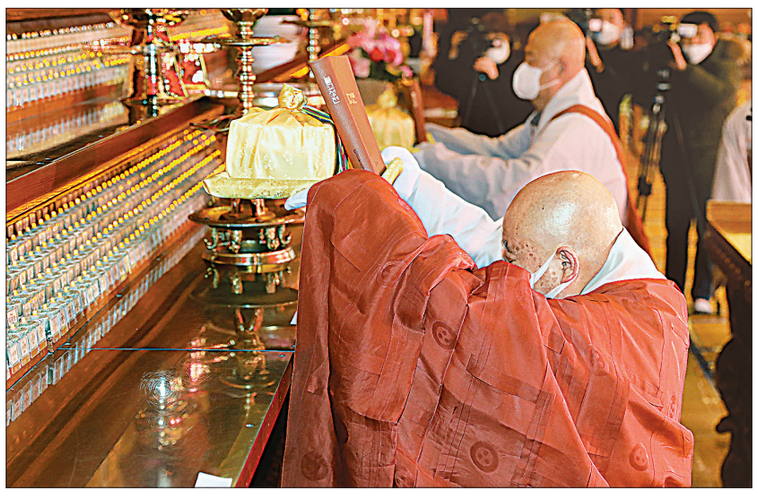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22일 제16회 대행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대행장학회 장학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여식 없이 전달됐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이 남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회로 각종 학업 우수 학생을 비롯해 신심이 돈독한 불자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담당 스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경인교육대학교의 불심이 돈독한 우수 학생에게도 수여된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 16명, 한마음장학생 18명, 경인교육대생 10명 등 총 44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장학회 측은 "지급되기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준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스런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 어려운 시기에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은 "이 장학금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큰 힘을 주시는 큰스님의 뜻이 살아있는 선물이자 양식"이라고 장학 의미를 부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성전 발간을 고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의 부처님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금색 보자기에 쌓인 성전이 봉정됐다. 조계종 최초의 〈불교성전〉이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는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단본 〈불교성전〉 봉정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월우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